

PSAT 언어논리에 대하여

1. PSAT 개요

PSAT(공직적격성평가,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는 특정 과목의 전문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를 위해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자료의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2. 언어논리영역

1) 정의

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추론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2) 취지와 성격

PSAT 도입 취지	언어논리영역의 성격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신입관리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능력을 측정한다. 암기 지식 위주의 평가보다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다양성, 창의성, 변화대응능력, 학습능력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한다.	다양한 정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파악하는 능력(이해능력), 파악된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능력(추론능력),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평가하는 능력(비판능력), 정보들을 재조직하거나, 새로운 정보들을 표현하는 능력(표현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나 정보 자체(지식)의 소유여부는 평가하지 않는다.
수험생의 시험주기 장기화는 국가인적자원의 소모를 낳는다. 이를 막기 위해 정상적인 교양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1차 시험에 충분히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암기를 통해 습득되는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나,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한다.
학교교육과 고시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복합적으로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통합학문적인 문제를 위주로 출제한다. 다양한 독서를 통해 넓고 깊은 교양을 쌓은 응시자가 유리한 문제를 출제한다.

3) 평가항목

다음은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출제될 문제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다.

평가항목	측정항목	참고사항
이해	·글의 주요 부분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예] 글 속에 제시된 저자의 핵심 주장이나 논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가?	·다양한 지문을 사용하여 폭넓은 독서를 유도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처세술이나 재테크 관련 글은 피하고 대신 공직자가 읽어야 할 만한 고전을 활용한다. ·문학작품의 감상능력은 평가하지 않는다.
표현	·글의 재료를 수집하여 개요를 구성하고 문단을 조직화하며, 고쳐쓰기를 통해 글을 완성할 수 있는가?	·맞춤법, 띄어쓰기 등 문법적 지식을 직접 묻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어휘력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추론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예]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한 후 예상되는 결론을 찾거나 드러나 있지 않은 전제를 찾아낼 수 있는가?	·기호논리학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논리학의 전문용어를 묻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비판	·글에 들어있는 논증 구조를 분석하여 타당성, 일관성, 관련성 등의 기준에 의해 논증의 설득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추론능력 이외의 모든 논리적 사고능력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4) 글의 소재

- 특정 학문의 전공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지문의 소재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에서 골고루 사용한다.
- 공직자에게 권할 만한 좋은 책이나 다양한 분야의 고전뿐만 아니라 서신, 설명, 홍보, 연설, 대화 등 실용적인 글도 지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 등과 같은 문학지문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지식은 대학의 교양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구성하였으며, 대학교양 수준을 넘는 전문용어가 포함될 경우 비전공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의미를 주석으로 달아준다.
- 다음과 같은 글을 소재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어의 문법과 수사법을 잘 따르고 있는 글
 - 논지가 분명하고 논지와 논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논리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글
 - 다양한 독서를 통해 넓은 교양을 쌓은 응시자가 보다 유리하게 독해할 수 있는 글
 -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고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준 높은 글
 - 여러 학문의 논의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통합학문적인 글

- 민주주의, 인간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다루거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글
- 한국사상이나 한국사 등 올바른 역사인식에 도움이 되는 글

5) 학습방법

- 이해능력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 읽기가 일상화되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기본 교양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도 이해능력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이해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조언한다.
- 표현능력은 글을 쓰는 기본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요약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그 글을 새로 고쳐 쓰는 훈련을 해 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추론능력은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서술된 고전, 교양서적, 논문 등을 읽고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글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바를 추정해보거나 그 글에서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등을 추정해 보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양수준의 논리학 교재를 일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논리적 비판능력은 글에 담긴 논증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글을 무작정 수용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지고 비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글을 이루는 각 부분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따져보고 전체 논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6) 문제 유형

언어논리영역은 크게 문제해결을 위해 독해력을 요구하는 언어PART와 논리PART로 나눌 수 있으며,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언어PART와 논리PART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언어PART : 일치추론, 사례 찾기, 핵심주장 찾기, 견해평가, 빈칸 추론, 문단배열, 문맥 수정
- 논리PART : 모순관계, 연역논증, 최대 최소, 참 거짓, 전제추가, 논리 퀴즈, 논증 오류, 논증 구조 찾기, 인과론, 가설 추론, 주장 비판, 강화약화, 상충과 양립 가능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PSAT 안내

7급 공채용 PSAT 예시문제로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각 영역별 4문제를 정답과 함께 공개합니다. 예시문제는 국가공무원 7급의 직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시험위원이 논의하여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7급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소재와 자료를 활용한 형태를 반영하여 5급 공채용 PSAT와 차별화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형태와 기존 형태가 함께 출제되고 다양한 난이도로 출제될 예정이오니 수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1. 다음 (가)에 제시된 <작성 원칙>에 따라 (나)의 <A시 보도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가) <작성 원칙>

- 보도자료의 제목 및 부제는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첫 단락인 ‘리드’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의 핵심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 제목과 부제에서 드러내고 있는 핵심 정보를 본문에서 빠짐없이 제시해야 한다.
- 불필요한 잉여 정보를 포함하거나 동일 정보를 필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 정보 전개에 필요한 표, 그래프, 그림 등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나) <A시 보도자료>

㉠ 봄철 불청객 ‘황사’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 대응 체계 강화와 시민 행동 요령 안내 등 철저한 대비로 황사 피해 최소화 -

㉡ A시는 매년 봄철(3 ~ 5월)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A시는 황사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시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매년 봄철이면 반갑지 않은 손님인 황사가 찾아온다. 황사는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A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황사 관측일수는 6.1일이며, 이 중 5.1일(83%)이 봄철(3 ~ 5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의 기상 전망에 따르면 A시의 황사 발생 일수는 4월에는 평년(1.9일)과 비슷하겠으나, 5월에는 평년(2.5일)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 최근 중국 북부지역의 가뭄으로 평년보다 더 강한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A시에서는 황사 발생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기후 상황 전파, 도로변과 대규모 공사장물 뿌리기, 진공청소차를 활용한 청소 등 체계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 ① ㉠을 ‘불청객 황사,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입니다’로 수정한다.
- ② ㉡은 아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③ ㉢에 최근 30년간 한국의 황사 발생 관측일수를 도표로 제공한다.
- ④ ㉣에 이어 중국 북부지역 가뭄 원인과 중국 정부의 대처 방안을 추가한다.
- ⑤ ㉤에 시민들이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과 그 안내 계획을 추가한다.

1. 문제 유형

2. 문제 해결의 실마리

[해설]

- ① (×) : 첫 번째 작성 원칙에 따르면, 보도자료의 제목 및 부제는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A시 보도자료>의 부제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자료의 전체 내용은 황사에 대한 대응책과 이를 통해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도자료의 제목으로 제시된 ㉠은 황사에 대처하고자 하는 목표 및 계획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② (×) : 두 번째 작성 원칙에 따르면, 첫 단락인 ‘리드’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의 핵심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에서는 ‘누가-A시, 언제-매년 봄철(3 ~ 5월), 무엇을-불청객으로 찾아오는 황사 피해를, 어떻게-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 왜-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③ (×) : 다섯 번째 작성 원칙에 따르면, 정보 전개에 필요한 표, 그래프, 그림 등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A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황사 발생 관측일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에서는 최근 10년간 A시의 연평균 황사 관측일수를 도표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 : 네 번째 작성 원칙에 따르면, 불필요한 잉여 정보를 포함하거나 동일 정보를 필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중국 북부지역 가뭄 원인과 중국 정부의 대처 방안은 A시의 황사 대처 방안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잉여정보에 해당하므로 추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⑤ (○) : 첫 번째 작성 원칙에 따르면, 보도자료의 제목 및 부제는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세 번째 작성 원칙에 따르면, 제목과 부제에서 드러내고 있는 핵심 정보를 본문에서 빠짐없이 제시해야 한다. <A시 보도자료>의 제목과 부제에서는 봄철 불청객 황사에 대한 A시의 대비와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A시 보도자료>의 본문 마지막 문단에서는 A시에서 황사 발생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부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민 행동 요령 안내에 대한 내용이 뒤이어 ㉤에 추가되는 것이 적절하다.

문 2.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2019년 7월 17일 학술연구자정보망에서 학술연구자 A의 기본 정보는 조회할 수 있는데, A의 연구 업적 정보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을: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자정보망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추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민원인은 학술연구자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요. 또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술연구자의 업적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는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갑: 학술연구자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추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조회 화면에 무슨 문구가 표시되나요?

을: 조회 화면에 “해당 연구자가 상기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해당 연구자의 업적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 화면에 “업적 정보 집적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고요. 해당 민원인께서는 무슨 문구가 표시되었다고 말씀하시나요?

갑: 문구 표시에 대한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아마 문구를 읽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학술연구자의 업적 정보 제공 동의율과 업적 정보 집적률은 현재 얼마만큼 되나요?

을: 2019년 7월 18일 오늘 기준으로 학술연구자의 연구 업적 정보 제공 동의율은 약 92%입니다. 동의자 대상 업적 정보 집적률은 약 88%고요. 동의한 학술연구자가 10여만 명에 이르러 자료를 집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2019년 8월 말까지는 정보 집적이 끝날 겁니다.

갑: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민원인에게 라고 답변 드리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① 지금은 조회할 수 없지만 2019년 8월 말이 되면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가 조회될 것이다
- ②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그의 업적 정보가 현재 집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 ③ 현재 학술연구자 A는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한 상태지만 그의 업적 정보가 현재 집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 ④ 지금은 조회할 수 없지만 만일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면 한 달 안에는 그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⑤ 오늘 다시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한다면 “해당 연구자가 상기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올 것이다

정답 : ㉠

1. 문제 유형

2. 문제 해결의 실마리

[해설]

지문에 제시된 대화를 논리적 기호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갑 1) A의 기본 정보 조회 ∧ -A의 연구 업적 정보 조회

을 1) 기본 정보 제공 ∧ -연구 업적 정보 공개 동의 → -연구 업적 정보 조회, 연구 업적 정보 공개 동의 ∧ -업적 정보 집적 완료 → -연구 업적 정보 조회

갑 2) -연구 업적 정보 공개 동의 → ?

을 2) -연구 업적 정보 공개 동의 → ‘-연구 업적 정보 공개 동의’문구 표시, -업적 정보 집적 완료 → ‘업적 정보 집적 중’문구 표시

갑 3) -문구 표시 언급

을 3) -정보 제공 동의 완료 ∧ -업적 정보 집적 완료

갑 4) 빈 칸

갑 1)에 따르면 학술연구자 A는 기본 정보 제공에 동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업적 정보는 조회되지 않는다. 제시된 빈칸은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언급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을 1)을 통해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학술연구자 A의 업적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실전 Skill]

갑 3)에 따르면 민원인은 문구 표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갑 2)와 을 2), 갑 3)의 내용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해내는 실마리가 될 수 없다.

문 3. 다음 글의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무직인 갑은 만 3세인 손녀의 돌봄을 위해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갑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5조(회원) ① 본 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시 소재 직장 재직자이다.

③ 회원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그러자 갑은 ○○시가 제정한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회원) ① 회원은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본 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시 소재 직장 재직자
2.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갑의 민원을 검토한 ○○시는 운영규정과 조례가 불일치를 발견하고 ㉠갑과 같은 조건의 사람들도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또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 ①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를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 ②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을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로 개정한다.
- ③ 조례 제5조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 ④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한다.
- ⑤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를 ‘만 5세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1. 문제 유형

2. 문제 해결의 실마리

[해설]

첫 번째 문단에 따르면, 갑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무직이며, 만 3세 아동의 직계존속이며 운영규정 제95조 2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갑은 조례 제5조 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조례에 의하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운영조례 제5조 2항과 운영규정 제95조 2항의 회원 조건이 불일치하므로, 운영규정 제95조 2항의 회원 조건이 운영조례 제5조 2항과 일치하도록 운영규정 제95조 2항을 개정하여야 하며, 운영규정 제95조 2항의 내용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되어야 한다.

문 4. 다음 글의 ㉠ ~ ㉤에서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한 곳을 찾아 수정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거짓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은 거짓말을 하려는 그 사람의 의도일까요? 아니면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일까요? ㉠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것을 믿는 대로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거짓인 경우, 이를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들곤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찌다 보니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참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내가 참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과 달라 거짓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라기보다는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되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런 거짓말을 ‘결과적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믿는 것과는 반대로 말하는 것을 ‘의도적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결과적 거짓말로 정의할 것인가, 의도적 거짓말로 정의할 것인가는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에 더 잘 맞는 것은 의도적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거짓인 말’과 ‘거짓말’은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연히 참이 된 말’과 ‘참말’도 구별되어야겠지요. 가령, 모든 것을 자신이 믿는 바와는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사람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라고 믿는다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는 사실과의 일치 여부로 보면 참말을 한 셈이지만,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자신의 믿음대로 말한 사람과는 다른 의미에서 참말을 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 그는 우연히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자신이 믿는 바대로 말하려고 했고 그 결과 진실을 말한 사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① ㉠을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로 수정한다.
- ② ㉡을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되겠지요’로 수정한다.
- ③ ㉢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로 수정한다.
- ④ ㉣을 ‘이 두 가지 거짓말이 모두 참말과 구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로 수정한다.
- ⑤ ㉤을 ‘그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로 수정한다.

정답 : ㉢

1. 문제 유형

2. 문제 해결의 실마리

[해설]

- ① (×) :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 거짓말을 하려는 그 사람의 의도와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는가의 여부 중 어느 것인지 물음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와 말이 사실과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서술되어야 한다. 첫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자신이 참이라 믿는 대로 말한 것이 사실과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은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② (×) : 첫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장부터 여덟 번째 문장까지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것을 믿는 대로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과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닌 사실과의 일치 여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닌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되므로,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③ (○) : 첫 번째 문단 아홉 번째 문장부터 끝에서 두 번째 문장까지가 근거이다. 지문에 따르면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거짓말을 만든다는 것을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며, 이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참이라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거짓말은 결과적 거짓말이라 한다. 따라서 ㉢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 : 첫 번째 문단 끝에서 세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가 근거이다.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참이라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 거짓말’이며, 자신이 믿는 것과는 반대로 말하는 것은 ‘의도적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은 자신이 믿는 것과 반대로 말하는 것이므로 의도적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⑤ (×) : 마지막 문단 두 번째 문장부터 끝에서 세 번째 문장까지가 근거이다. 지문은 우연히 참이 된 말과 참말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모든 것을 자신이 믿는 바와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믿는다면, 그는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말할 것이다. 이는 사실과의 일치 여부로 보면 참말을 한 것이지만, 자신이 참말을 하겠다는 의도대로 참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우연히 진실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